

다저스, 월드시리즈 2연패할까?



▲ LA 다저스 크리스 테일러가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9회 말 2사 2루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린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dailyherald.com

지난해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무려 106승(56패)을 올렸지만 107승을 거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밀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실패했다. 대신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지난 6일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단판 승부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다. 상대인 세인트루이스가 '가을 좀비'로 불릴 만큼 포스트시즌에서 좀처럼 지지 않는 팀이라 힘겨운 승부가 예상됐다.

다저스는 예상대로 고전했다. 1회 초 먼저 실점한 뒤 세인트루이스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에 공략에 애를 먹으며 끌려갔다. 그래도 4회 말 터진 저스틴 터너의 좌월 동점 솔로포로 다저스는 간신히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지만 끝내 9회 말 승부가 같았다. 9회 말 2사 2루에서 크리스 테일러가 세인트루이스 투수 알렉스 레예스를 상대로 좌중월 2점 끝내기 홈런을 날린 덕에 다저스가 3-1로 승리하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마지막 날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치열한 지구경쟁을 벌였지만, 1승 차이로 디비전시리즈 직행 티켓을 놓쳤다.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106승을 기록

하고도 지구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팀이 됐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9년 연속 디비전시리즈에 올랐고, 월드시리즈 2연패 도전을 이어갔다. 다저스는 지난 8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5전 3선승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106승 팀과 106승 팀의 흥미진진한 대결이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 1.2위 팀이 월드시리즈가 아닌 디비전시리즈에서 맞붙은 것이다.

2000년 뉴욕 양키스를 끝으로 월드시리즈 연패에 성공한 팀은 없었다. 다저스가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은 26인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팀이 패배하면서 올 시즌을 마감했다. 시즌 성적은 7승 7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올시즌이 끝남으로써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맺었던 2년 계약도 끝이 났다. 김광현은 지난 2019년 SK와이번스(현 SSG) 시절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김광현이 MLB 진류할지 아니면 원소속팀 SSG로 복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시리아에 진땀승 …손흥민 결승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시리아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두며 조 선두에 올랐다.

월 레바논과 2차예선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렸지만, 당시에는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 골이었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3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편 홈에서 열린 3경기에서 2승 1무(승점 7점)를 기록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이란(승점 6점)을 제치고 조 선두에 오른 한국은 오는 12일 이란과 4차전 원정에 나선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아냈다.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후반 2분 아크 정면에서 날린 원발 중거리 슈팅이 시리아 골문을 열었다. 한국은 이후에도 몇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추가 골은 터지지 않았다. 추가골을 얻지 못한 한국은 결국 시리아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38분 하르빈이 페널티지역 좌측에서 날린 오른발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

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은 시리아전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경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라며 "이전 최종예선 3경기와 다른 경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벤투 감독은 이란이 한국에게 어렵고 터프한 팀이듯 이란도 한국이 어렵고 터프한 팀일 것이라며 분석을 잘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우린 승점 3을 따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다음 경기는 최종예선 경기 중 하나이고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벤투호는 12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최종예선 4차전을 치른다.



▲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시리아와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차전 경기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사진=etoday.co.kr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